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인터뷰

“인사·정책·예산 진정성 갖고 협치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야는 협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있어 '정국은 꼬이고 민생은 실종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일보에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를 갖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대적 화두인 협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의 실존에는 여권의 책임이 더 크다. 인사·정책·예산 등에 있어 야권과 진정성 있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역사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한 달을 평가한다면.

▲보수 정권 9년 동안 이뤄졌던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종식하고 과격적인 소모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 하지만 이미지, 이벤트 정치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신료 인하 등 보여주



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은 더 잘하라는 민심의 제책으로 받아들인다. 제3당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겠다. 민생을 살피는 보다 나은 정책 제시와 인재 확충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국민의당 재기의 근거는

▲국민의당은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의 물꼬를 댔다. 한 마디로 정치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실제로 지난 대선만큼 호남 민심 구애 경쟁이 펼쳐진 적이 있는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의 결과는 호남의 미래 비전과 호남 인사 중용으로 나타났다. 일당 독점 구도는 이제 더 이상 민심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 언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나.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직후인 연말에는 국민의당 지지가 오르는 등 정치적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다. 여권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꺾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시기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정당대회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 민심의 지지를 모아 갈 것이다.

文정부 파격 소통행보 좋지만

보은·코드인사 남발이 문제

국민의당이 다당제 물꼬 터

지지율 하락은 잘하라는 채찍

기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진단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추어 식으로 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인사에 대한 입장.

▲초반의 지역 및 진영의 대통합 취지가 퇴색되고 캠프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보은·코드·지방선거용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문제다. 편 가르기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정문희 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자질과 역량을 우선으로 협치가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거짓말 논란 등 흠이 많았으나 비교시·여성·개혁성 등을 고려, 협조하려 했다. 하지만 자질과 역량이 너무 부족했다. 난마처럼 얽힌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김이수 현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본회의의 표결 참여로 풀어간다는 입장이었지만 여권이 김상조·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거나 나설 예정이어서 오히려 정국이 꼬이고 있다.

-조대엽, 안경환,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입장.

▲아직 본격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초반부터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가뭄이나 AI 대책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이는 것은 반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일자리 증가가 어느 정도 필수 불가결하다면 이는 본예산에 반영, 처리하면 된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고공 행진을, 국민의당은 폭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돼 있지만 잘 해야 한다, 잘 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포함돼 있다. 역대 정부도 같은 과정을 거쳤지만 모두 실패했다. 문재인 정

가뭄·AI 대책 추경은 필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안돼

민주당과 통합 절대로 없어

호남, 지방선거 인물 택할 것

-민주당의 통합과 연정에 대한 입장.

▲다당제는 시대적 가치다. 절대로 민주당과의 통합은 없다. 연정은 당 대 당 정책 협약과 공동 내각을 구성하는 독일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이러한 연정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현재의 여권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120석의 의석과 41% 대선 지지율에 불과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정에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론도 나오고 있다.

▲호남 민심이 그리 쉽지 않다.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다당제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느 한 편이 대승하는 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이 이뤄질 것이고 국민의당은 혁신을 통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그린 산단에 車 애프터마켓 단지 조성을”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오병기 책임연구원 주장

완성차 연계 시너지 효과 기대

구분된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점에 나선 광주·전남에 자동차 애프터마켓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한경록·오병기 책임연구원은 15일 광주전리더스인포(Info)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애프터마켓은 비포마켓 대비 3~5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대체부품 산업과 재제조산업 관련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동차 튜닝 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정비를 통한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 안전과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튜닝, 기능이나 디자인 부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파생되는 서비스 시장을 의미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은 순정부품과 대체부품 시장으로

대체부품 시장은 전체 자동차 부품 산업의 약 17%를 차지하고 대만 제품이 99%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미미한 한국 제품 진출 등을 고려해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에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지에 애프터마켓 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제안했다.

한경록 연구원은 “빛그린 산단에 애프터마켓 전문단지를 구축하면 완성차 단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을 활용한 튜닝 산업 육성, 조선산업의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업종전환 지원 등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재봉 (주)한섬피앤디 회장, 박병중 고흥군수가 15일 고흥군청에서 진지도 복합휴양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고흥 진지도에 1100억 들여 복합휴양지 건립

전남도·군·한섬피앤디 협약

전남도와 고흥군은 지난 1월 진지도를 해안·섬 우선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이어 15일 고흥군청에서 (주)한섬피앤디와 1100억원 규모의 복합휴양지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재봉 회장,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병중 고흥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주)한섬피앤디는 1단계로 2018년까지 토지 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2단계로 2020년까지 휴게 라운지·리조트 등 숙박과 편의시설 설치, 3단계로 2024년까지 코티지 빌리지, 비치리조트, 전망대 등 장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완성 등을 추진한다.

주변의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및 엑스포단지, 순천만 국가정원박물관과 연계해 관광전남 발전의 견인차가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투자가 완료되면 매년 생산유발효과 240억원 이상, 고용 창출 1500여명으로 증경기업 50개 유치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줄어드는 전남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봉 회장은 협약식에 앞서 “고흥 진지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 맑은 공기는 휴양지로서 전국 최고라고 판단돼 투자를 결심했다”며 “전남관광의 한 축을 담당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지도는 고흥 과역면 백일리에 위치해있다. 고려 말 수군만호가 왜군 퇴치를 위한 진지를 설치해 진지도라 불린다. 인근 영남면에서 여수 화양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가 2020년 완공되면 진지도와 여수 화양 간 거리는 25km로 30분 이내의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ENJOY FUTURE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 추가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17. 5. 15(월) ~ 7. 14(금) 18:00

합격자 발표 | 2017. 7. 28(금) 15:00

입학전형 | 2017. 7. 22(토), 필답고사(모의토익) / 면접고사

개강일 | 2017. 8. 28(월)

기초과목 수업기간(K-MBA) | 2017. 8. 14(월) ~ 8. 26(토)

학위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고
경영전문석사(MBA)과정	Global MBA(주간, 야간 및 주말)	00명	영어 및 한국어
	K-MBA(야간 및 주말) : 한국형 MBA	00명	한국어
	계	100명	

문의전화 | 062-530-1501~2 자세한 내용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mba.jnu.ac.kr 참조